

청년 신규 취업자 규모 축소와 경력 취업자 증가

김 종 욱*

청년 신규 채용 규모 축소와 경력직 증가 현상은 최근 들어 더 명확히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청년층 신규 취업자의 규모와 비중이 최근 줄어든 것으로 보아 청년 채용 기회가 다소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이후 청년 상용직 취업자 중 경력 취업자 비중이 늘었고 당해 입사자 중 경력 취업자 비중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양상에서는 산업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1. 머리말

지난 10년간 청년(15~29세) 고용률은 큰 변화 없이 40%대에 머물렀다. 반면, 신규 학졸자 고용률은 최근 들어 하락하였다. 졸업한 지 1년가량 지난 청년들을 포함해도 그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2017년까지 50%대를 기록한 신규 학졸자 고용률은 2020년 42.1%까지 떨어졌다. 대졸 신규 학졸자의 고용률도 55.7%에서 46.8%까지 떨어져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으로는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와 경력직 취업자 증가 현상이 꼽힌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2021년 채용시장 이슈에 관한 설문에서 '채용 규모 축소'가 최대 이슈라고 응답한 기업이 44.5%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년 전부터 과거와 같은 대규모 대졸 공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채용 방식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채용 규모가 줄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직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면서 신규 학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wkim@kli.re.kr).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17)에 따르면 2009년 17%대의 경력직 채용 비중이 2017년 31%로 증가했다. 기존의 신규 취업이 당해 졸업했거나 한두 해 전에 졸업한 청년들 사이의 경쟁이었다면, 최근에는 여기에 직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이 가세하면서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노동시장 진입 제약의 원인들이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지 알아본다. 청년 신규 취업자 규모 축소와 경력 취업자 증가가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II. 청년 신규 취업자 규모 축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 규모 및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채용의 결과로 취업자가 발생하므로 특정 시점에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그 시점에 입사한 신규 취업자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대비 2020년에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줄었다면 2020년에 입사한 신규 취업자는 2019년에 입사한 신규 취업자보다 적을 것이다.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해 신규 취업자 변화를 통해 신규 채용 규모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다. 비교에는 청년 전체 취업자 중 당해 입사한 신규 취업자의 비중을 활용한다. 신규 취업자 규모를 시기별로 직접 비교하면 인구 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 연도와 현 직장 입사 연도가 같은 사람을 신규 취업자(당해 입사자)로 정의한다. 분석 대상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자 산정 시 재학 중 취업은 제외한다. 졸업 후 취업이라 할지라도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자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 지위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와 창업 등이 포함돼 있어 분석하고자 하는 바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논의는 최종 학교 졸업 후 취업한 청년(15~29세) 상용직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청년 신규 채용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 청년 상용직 취업자 중 당해 입사자의 비중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2016년 41만 명이던 신규 취업자가 2020년 34만 8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상용직 대비 비중도 9.7%에서 6.6%로 줄었다.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2019년에는 그 비중이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어 상용직 당해 입사자 규모가 전년보다 5만 6천 명(-1.5%포인트) 줄었다.

집단을 대졸자로 한정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대졸 청년 상용직 당해 입사자의 비중은

2017년까지 20% 정도를 유지하다 2020년에 16.4%까지 떨어졌다. 규모로는 19만 6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약 4만 6천 명 감소했다. 대졸 신규 채용 역시 최근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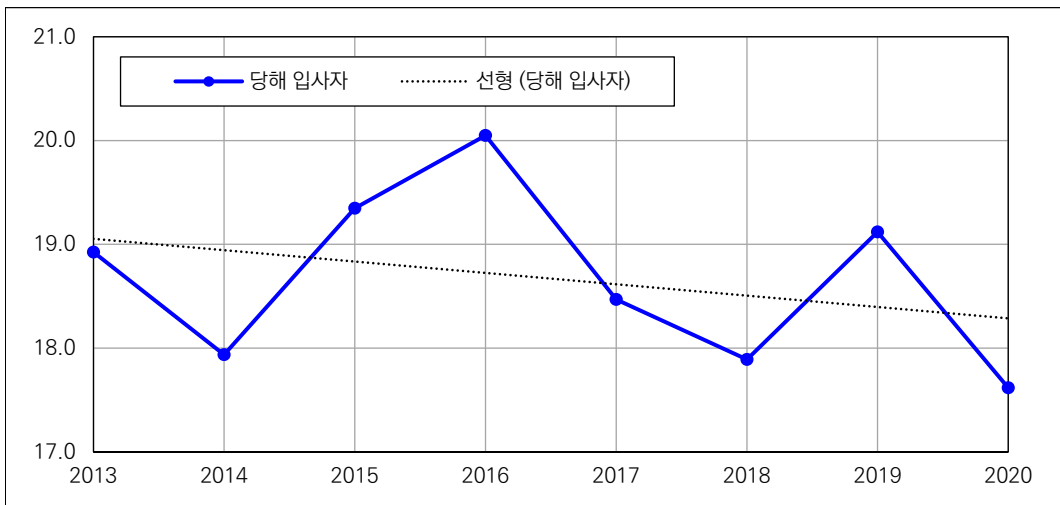
청년 신규 취업자 감소가 노동시장 전체의 경직에 의해 나타난 현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 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면, 즉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에 대한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다면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게도 자연스럽게 기회가 덜 주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채용자 수와 경찰 부가조사의 신규 취업자 수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당해 신규 채용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전수에 가까운 사업체의 연간 신규 상용직 채용자 수의 합, 그 자체를 의미한다. 신규 상용직 채용자 수는 2013년부터 큰 변화 없이 서서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4만 명가량 채용 규모가 커졌다. 전체 상용직 종사자 중 신규 상용직 채용자의 비중 역시 2% 내외로 유지 중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5월 부가조사 기준)에서 청년 신규 취업자를 살펴보는 방식과 동일하게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보아도 상용직 신규 취업자 수는 최근 들어 소폭 증가하였고, 신규 상용직 취업자 비중 역시 전체 상용직의 8.5% 내외로 유지되었다. 즉,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상용직 채용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청년 신규 취업자 축소는 전체 채용시장 경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년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산업별, 규모별, 직업별 신규 취업자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청년 상용직 종사 비중이

[그림 1] 청년(15~29세) 상용직 취업자 중 신규 취업자(당해 입사자)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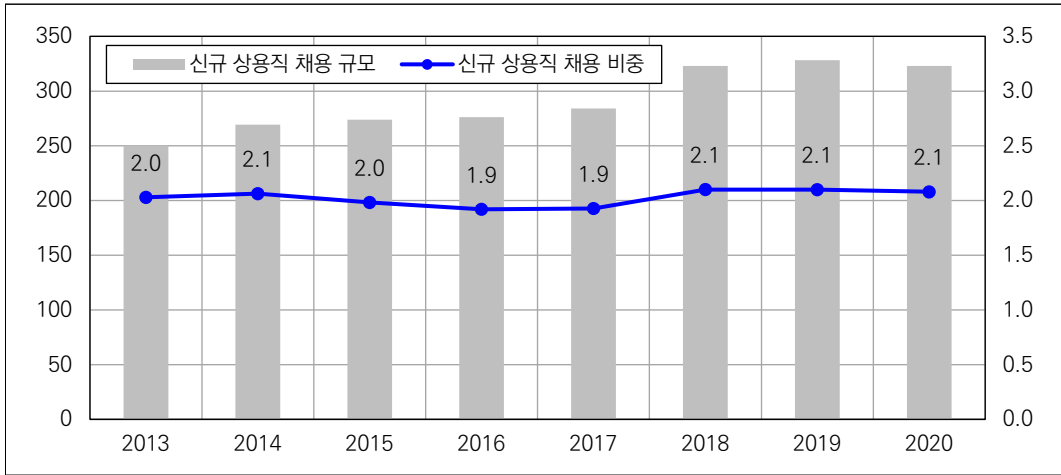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높은 주요 산업들의 당해 입사자 비중이 [그림 3]에 표시되어 있다. 좌측에는 주로 상용직 취업자 중 신규 취업자 비중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산업, 우측은 반대로 그 비중이 최근에 늘어난 산업이다.

도소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등에서는 대체로 2016년 이후 청년 상용직 신규 취업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도매 및 소매업 신규 취업자는 2016년 5만 8천 명에서 2020년 2만

[그림 2] 연도별 신규 상용직 채용자 규모(좌축) 및 상용직 종사자 중 신규 채용자 비중(우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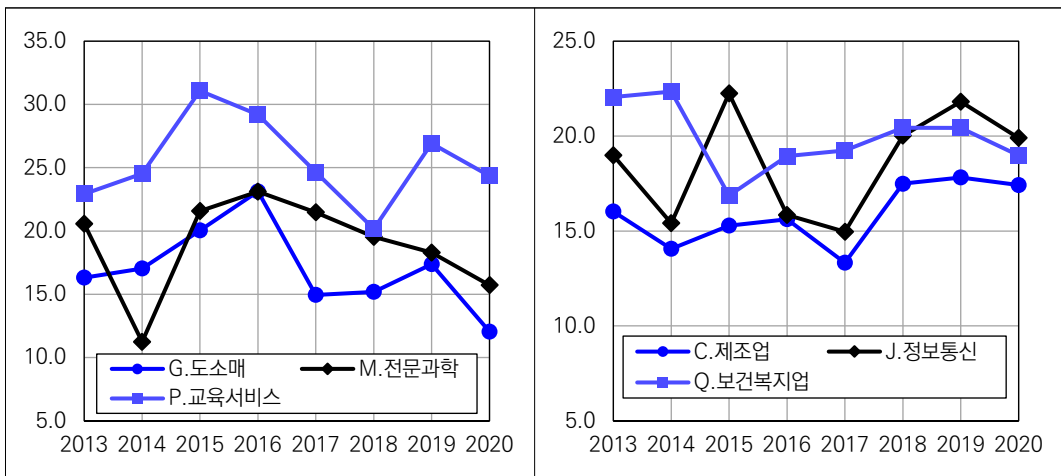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KOSIS.

[그림 3] 주요 산업별 청년(15~29세) 상용직 취업자 중 신규 취업자(당해 입사자)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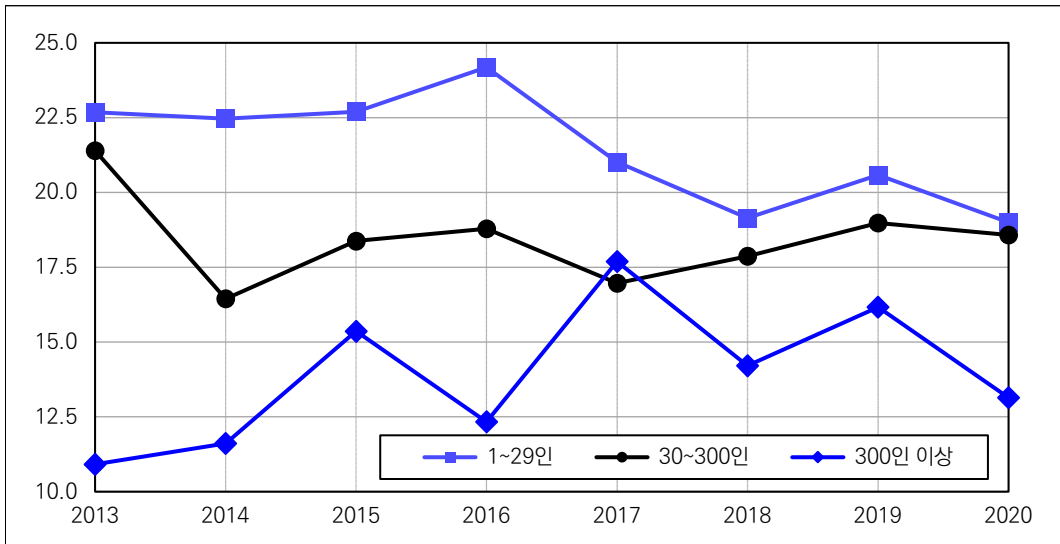
6천 명으로 줄었고 상용직 취업자 대비 신규 취업자 비중은 23.1%에서 12.0%로 크게 줄었다. 같은 시기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도 신규 취업자가 4만 3천 명(23.1%)에서 2만 5천 명(15.7%)으로 줄었다. 교육서비스업은 상용직 종사자 중 당해 입사자 비중 자체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는데, 기간제 교원, 각종 강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의 특성상 해마다 신규 유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일시적으로 당해 입사 비중이 늘었지만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줄었다.

제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업에서는 2017년 이후 신규 채용을 소폭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 임금총액이 비교적 높은 산업인데, 이들 산업에서 당해 입사자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신규 취업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산업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규모별로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에서 신규 취업자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종사자 규모 1~29인 사업체의 경우 신규 취업자 비중이 2013년 이후 서서히 감소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20년에는 2만 6천 명 감소했고, 전체 상용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이 속해 있는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등락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당해 입사자 비중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 2017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으나 분석 기간 전체를 보면 횡보 정도로 보아야 한다.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청년(15~29세) 상용직 취업자 중 신규 취업자(당해 입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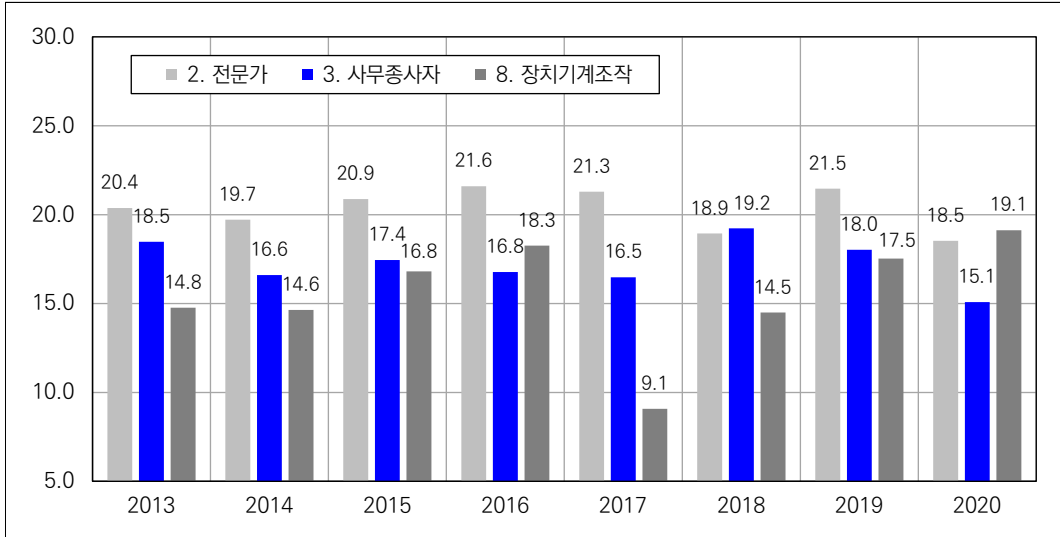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직업별 청년(15~29세) 상용직 취업자 중 신규 취업자(당해 입사자)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37.2%), 사무종사자(30.6%), 장치기계조작(8.9%) 순으로 청년 상용직 취업자가 다수 분포했다. 이들 중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에서는 신규 취업자 비중이 줄었고 장치기계조작의 경우 그 비중이 늘었다. 앞에서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7년 이후 제조업 신규 취업자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직종인 장치기계조작의 신규 취업자 비중 또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최근 신규 취업자 비중이 줄었던 직종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는 전문가와 사무종사자가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의 신규 취업자 비중도 줄어들었다.

III. 청년 경력 취업자 증가

이 장에서는 경력 채용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기준으로 전체 청년 취업자 중 직장 경험이 있는 경력 취업자의 비중을 활용한다. 또한 신규 취업자(당해 입사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경력 취업자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신규 취업자 중 졸업 후 현 직장이 첫 직장인 취업자를 신입 취업자로 정의하였고, 현 직장 전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취업자를 경력 취업자로 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최근 들어 신입 채용은 줄어들고 경력 채용은 다소 늘어난 모습이다. 2017년까지는 청년 상용직 취업자 중 당해 입사한 신입 취업자, 경력 취업자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 2018년 이후 경력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고 신입 취업자 비중은 감소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신입 취업자는 4만 8천 명(-2.2%포인트) 감소했고 경력 취업자는 1만 6천 명(+1.5%포인트)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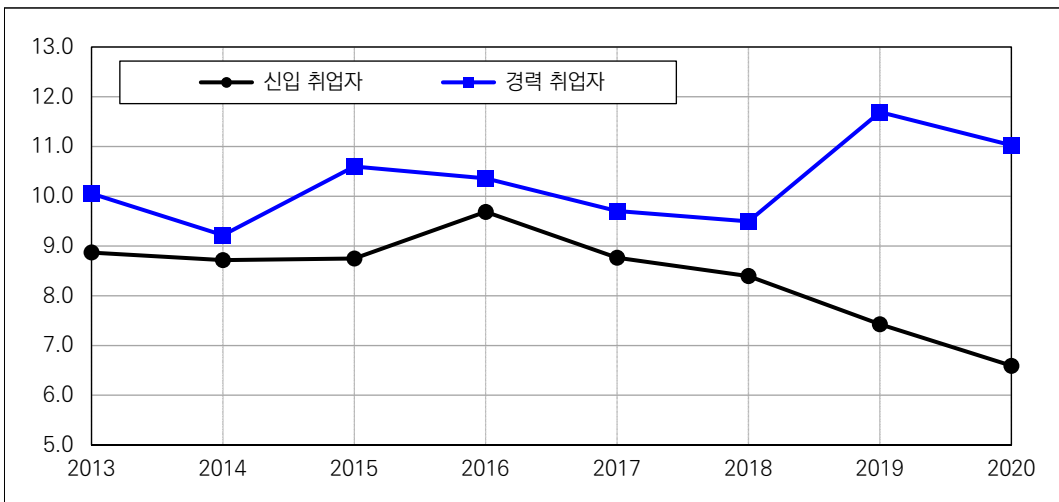
신규 취업자를 100으로 보고 이 중 경력 취업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경력 취업자 증가 양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6을 보면 2018년까지는 신규 입사자 중 신입 취업자와 경력 취업자의 비중이 5 대 5 정도였다. 이후 경력 취업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경력직 비중이 62.6%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경력 취업자 증가 양상은 달랐다. 청년 취업자가 다수 분포한 주요 산업 중 경력직 취업자 증가 양상이 비교적 분명히 나타나는 산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다. 두 산업에서는 상용직 취업자 중 당해 입사 경력 취업자 비중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입사자 내부 구성에서도 경험이 없는 신입 취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경력 취업자의 비중은 늘어났다. 제조업에서는 경력 취업자 비중이 2013년 10.1%에서 2020년 12.5%로, 정보통신업에서는 이 비중이 6.4%에서 12.1%로 증가했다. 당해 입사자 중 경력 취업자 비중도 서서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제조업에서 71.5%, 정보통신업에서 61.0%를 기록했다.

두 산업 모두 내수 기반 서비스업이나 사회서비스업에 비해서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요구하는 숙련 수준이 높아 경력직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어 경력 취업자가 증가했을 수 있다.

[그림 6] 청년(15~29세) 상용직 취업자(=100) 중 당해 입사한 신입 취업자, 경력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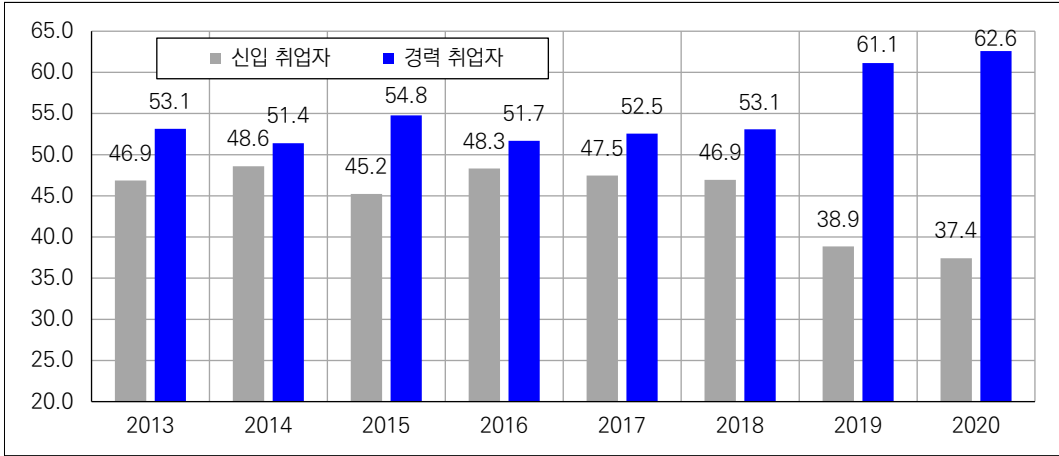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신규 취업자(당해 입사자)=100 중 신입 취업자, 경력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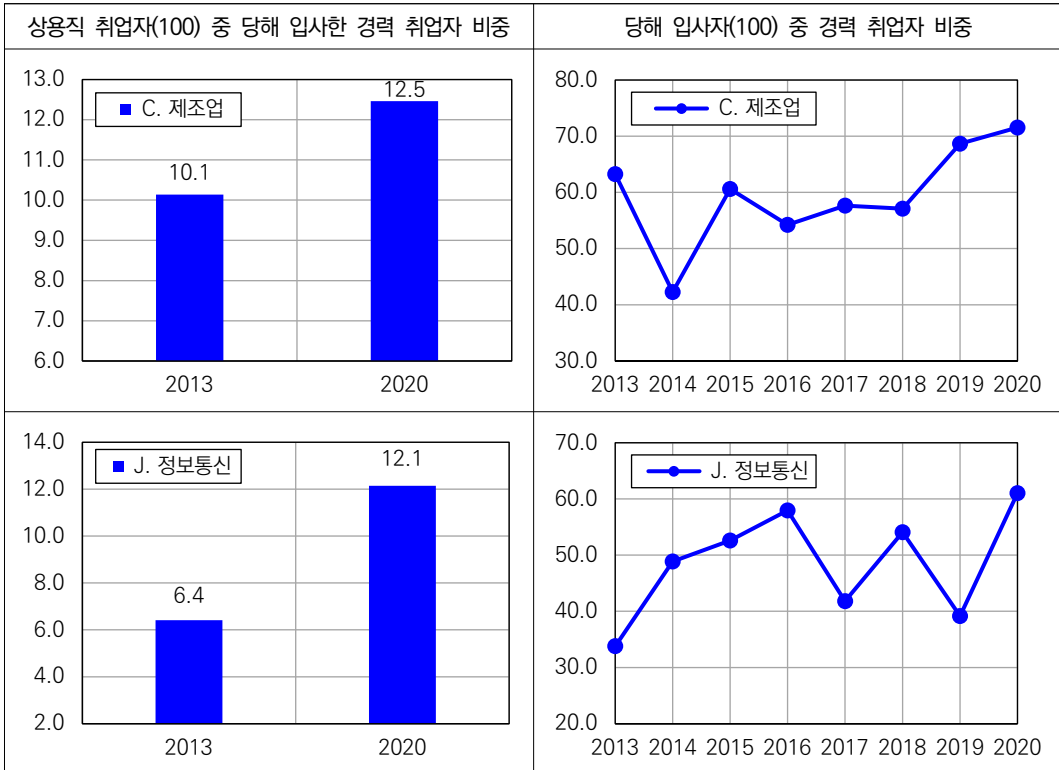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8] 경력 취업자 비중 변화(경력직 증가 산업)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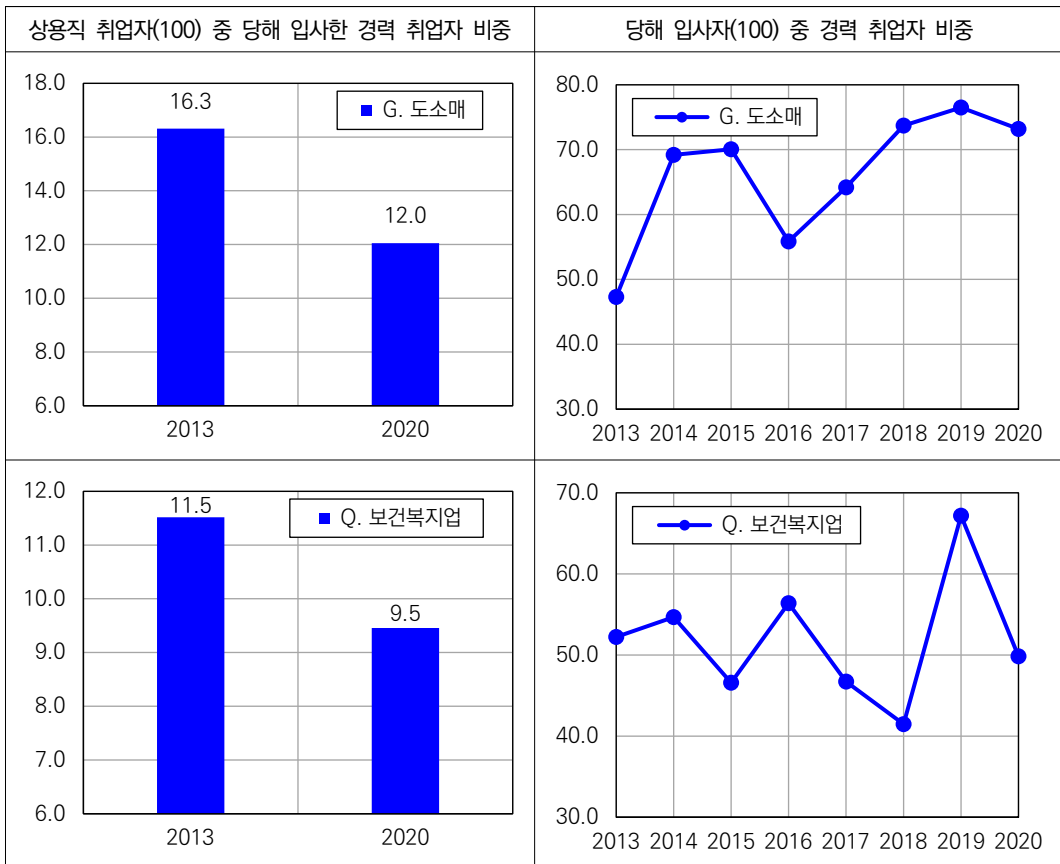
특히 정보통신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송 산업 등의 분야가 포함된 산업이기 때문에 경력직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주요 산업 중 도소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경력 취업자의 비중이 줄었다. 2013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그 비중이 16.3%에서 12.0%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11.5%에서 9.5%로 줄었다. 신규 취업자 중 경력 취업자의 비중은 도소매에서 증가했고 보건복지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두 산업에서 나타나는 경력직 비중 감소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도소매업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층 당해 입사자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이다. 당해에 도소매업으로 취업하는 청년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 도소매업 경력 취업자 비중도 줄어든 것이다. 도소매업은 전체 신규 취업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경력 취업자보다 경험 없는 신입 취업자

[그림 9] 경력 취업자 비중 변화(경력직 감소 산업)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의 진입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규 취업자 중 경력 취업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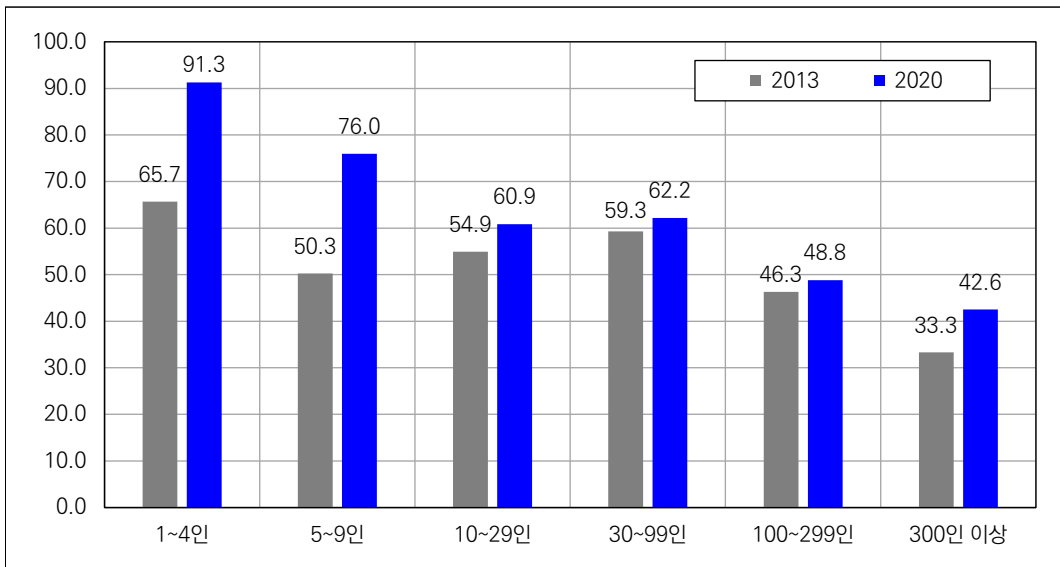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간호, 사회복지 등의 분야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학과 졸업생도 많고 취업률도 높다. 한국표준교육분류상 보건 및 복지 분야 졸업생¹⁾이 9만 명에 달한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16.1%, 여성으로 한정하면 22.8%가 이 분야 신규 졸업생이고 취업률도 모든 분야 중 가장 높은 77.8%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상대적으로 새로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신규 학졸자가 많고 무경력자라 하더라도 취업이 잘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경력 취업자 비중이 줄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업별로는 신규 채용 규모 변화를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별 경력 채용 변화와 연계된 모습이 나타났다. 제조업 경력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장치기계조작 직종의 경력직 비중 역시 2013년 6.4%에서 2020년 13.7%로 크게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간호사, 사회복지사 포함) 중 경력 취업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2.8%에서 10.0%로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부분의 종사자 수 규모에서 전체 취업자 중 당해 입사한 경력 취업자 비중이 늘었다. 다만, 당해 입사자 내부에서의 경력 취업자 비중 변화는 규모별로 다소 차이

[그림 10] 사업체 규모별 당해 입사자(100) 중 경력 취업자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연보 기준(한국교육개발원).

가 있었다. 모든 규모에서 신입 취업자보다 경력 취업자의 비중이 늘었지만 1~4인 소규모 사업체의 경력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13년 대비 2020년 증가분도 가장 컸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로 진입하는 신규 취업 자체가 경력이 없는 신입 취업자를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력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원인으로 회자되는 청년 신규 채용 규모 축소와 경력 취업자 증가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조사 당해 취업한 신규 취업자를 식별해 낼 수 있고, 이들 중 현재 직장 외의 직장 경험이 있는 경력직과 직장 경험이 없는 신입직을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볼 때는 청년 상용직 취업자 중 신규 취업자(당해 입사자), 신입 취업자, 경력 취업자의 비중을 주로 활용했다.

우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용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취업자 중 조사 연도 당해에 입사한 신규 취업자의 비중이 2013년 이후 다소 줄었다. 전체 노동시장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 신규 취업자의 규모 및 비중이 줄어든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채용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경력 취업자 증가 현상은 최근 들어 통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8년 이후 청년 상용직 취업자 중 직장 경험이 없는 신입 취업자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반면, 경력 취업자 비중은 늘었다. 당해 입사자를 100으로 봤을 때 경력 취업자 비중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올해 입사한 10명 중 6명은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부문별로는 최근 들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청년 신규 취업자 규모가 커졌고 경력 취업자 비중도 늘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임금총액이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 요구하는 숙련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력직 위주로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청년 신규 취업자 규모와 경력 취업자 비중이 함께 줄었다. 도소매업으로 취업하는 신입, 경력 취업자 모두 줄어들고 있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는 늘어나는데, 경력 취업자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는 산업적 수요 증가와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새로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신규 학졸자가 많고 이들의 취업률도 높아 무경력 신입 입직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 신규 채용 규모 축소와 경력직 증가는 최근 들어 통계적으로 더 분명하게 확인됐다. 향후 분석에서는 여러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력직 채용의 증가가 기간을 두고 신입직 채용을 감소시키는지, 즉, 경력직 채용이 신입직 채용을 구축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I](#)

[참고문헌]

한국경영자총협회(2017),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20),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